



---

# 디자인과 UX의 차이

---



# Contents

1. 내 주변 일상생활 속 다양한 UX(사용자경험)의 차이
2. 두번째 보고서 작성 후(깨달은) UX
3. 강남역 침수피해의 5-Whys 원인분석



**Part 1**

**내 주변 일상생활에서  
"디자인과 UX(사용자경험)의 차이" 사례**

# "디자인과 UX(사용자경험)의 차이" 사례

## [사례1] 마스크는 필수! 디자인과 기능은 다양하게!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며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이 마스크를 필요로 했고  
크기, 질감, 두께 등의 기존의 마스크를 사용했던 사용자들은  
외관상 예쁘고, 기능적인 마스크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래 지속 되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마스크의 귀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불편함이 생기자  
크기의 세밀함과 색의 다양화, 필터형, 새부리형 등의 외관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귀 뒤가 아프지 않게 끈이 아니라 넓은 부직포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스타일이  
생겨나면서 같은 마스크를 사용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한 UX사례라고 볼 수 있다.



# "디자인과 UX(사용자경험)의 차이" 사례

## [사례2] 핸드폰 받침의 발전

요즘은 사람들이 길을 거치대를 가지고 다녔으나 부피를 차지하고 잃어버리고 부실한 제품은 걷고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예전엔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이 불편하여 뒤에 물건을 받쳐 세우고 팔이 아팠다.



그래서 휴대폰 부서지기도 해서 불편함을 느꼈고 어디서든 휴대폰을 세울 수 있는 기능까지 겸비한 클립 톱을 만들어 뒤에 붙여 사용했다. 하지만 페이가 등장하면서 클립 톱에 불편함을 느껴 카드형으로 만들었고 납작하게 또는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페이나 카드를 찍어도 무방한 핸드폰 받침의 전성기가 올 수 있었다.

*[사례2]를 통해 핸드폰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더욱 편하게 보관이 가능하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디자인과 UX(사용자경험)의 차이" 사례

## [사례3] 드릴의 변화로 인한 인식



공구 좀 다룰 줄 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드릴을 가지고 있는데 크고 힘이 좋고 디자인은 별로 안 예쁘지만 기능이 확실한 제품들을 많이 선호했고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었고 대부분의 남자라면 드릴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할 것 같았고, 여성들이 다루기에는 투박하고 위험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체가 너무 커서 좁은 곳에 드릴을 박기가 어려웠고 줄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현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고 콤팩트한 사이즈의 무선 드릴이 나오면서 디자인도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이 아닌 누구나 다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되었다.

*[사례3]을 통해 드릴이라는 공구에도 불편함이 생기면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하여 디자인과 기능적인 면을 둘 다 잡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Part 2**

**두번째 보고서 작성 후(개달은) UX**

## 두번째 보고서 작성 후(깨달은) UX

디자인과 UX의 차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찾아보면서 남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문제를 총책임자의 느낌으로 변화와 개선하려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찾을 수 있음을 알았다.

UX는 3가지 사례를 보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환경이나 장치, 기능 등을 파악하여 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표현하여 입체적으로 제품에 적용하고 변화를 이루어내며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편의성과 배려가 묻어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



## Part 3

# 강남역 침수피해의 5-Whys 원인분석

# 2022년 강남역 사거리 침수피해 근본원인

## 사건의 발단

강남의 물이 빠지지 않아  
매해 폭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남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를 찾기 시작함.

## 사건의 원인

많은 원인 중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배수구 덮개를 덮어두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 곳으로  
물이 몰려 침수피해가 심화됨.

## 사건의 이유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배수구 냄새와 벌레가 올라와서  
덮개를 덮어 방지하고자 하였음.

## 사건의 관리

행정적으로 관리하라고 했으나  
관리할 사람과 인건비의 급등,  
사법권 행사 유무에 따른 내용으로  
실현되기 어려움.

## 사건의 근본원인

나만 아니면 된다, 내가 불편하다는  
시민의식으로 인해 배수구의 역할이  
무용지물되어 강남역 사거리의  
침수피해가 매해 반복되고 있음.

결국, 강남의 지형의 문제에서 시작하였지만 결국은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재해임을 알 수 있다.





—

# THANK YOU

—

“디자인과 UX의 차이” 조사보고서

• by. 손수경